

# 익산시, 2019도 본예산 편성

### 946억원 증가한 1조1859억원 시의회 제출

익산시가 올해 예산보다 946억원 증가한(8.7%) 1조 1,859억원 규모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내년 예산은 민선7기 주요 시정운영 방향인 도시의 상생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농정혁신과 선진화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 911억원(9.3%)이 증가한 1조 712억원, 특별회계 35억원(3.1%)이 증가한 1,147억원을 편성했다.

익산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했으며, 세출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4,182억원으로 39%에 달하고, 농림분야가 1,468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안전분야는 올해보다 168억원이 증가한 907억원을 반영하여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공사 42억원,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32억원,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49억원,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20억원 등을 편성했다.

체육 및 문화관광분야는 올해보다 205억원이 증가한 848억원을 반영하여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 30억원,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34억원, 익산시 펜싱아카데미 건립 58억원, 익산시 실내아구연습장 건립 30억원, 마삭사지 관광조성 20억원, 왕궁리 유적 및 마삭사지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83억원 등을 반영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올해보다 476억원이 증가한 4,364억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472억원, 기초연금 지급 1,133억원,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310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237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61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38억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0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올해보다 75억원이 증가한 1,468억원을 반영하여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85억원, 농촌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 147억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77억원, 친환경 농업육성 100억원, 익산시 APC건립추진 22억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43억원, 축산경쟁력 강화 98억원 등을 편성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45억원이 감소한 143억원을 반영하여 주얼리단지 임대형 공장 건립 36억원, 지역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 26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63억원, 도시가스 보급 및 설치비 지원 14억원 등

을 반영했다.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분야는 올해보다 135억원이 증가한 1,005억원을 반영하여 운수업계 운영지원 340억원, 교통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48억원, 군도23호선 도로확포장 30억원,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10억원, 마하로 도로개설 8억원, 왕궁천, 동명천 하천정비 11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79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170억원 등을 편성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19년 예산은 '도농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재정사업 관리강화 및 타당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살펴 반영하였다"며 더불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익산시 예산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익산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 찾아가는 동네문화 카페 인기

### 군산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활용

군산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공간을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해 희망하는 시간, 장소에서 배우고 싶은 문화강좌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네문화카페는 강사와 매니저에게는 일자리를 소상공인에게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학습자는 다양한 평생학습문화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골목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소상공인 사업장 274개소에서 시민 2,461명이 392강좌에 참여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군산시는 동네문화카페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및 사업주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인제대학교 평생교육계 직원 10명이 직접 동네문화카페 현장을 방문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점검을 통해 동네문화카페 운영 방식에 어긋난 10강좌를 폐강 조치한 바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지역경제위기 극복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 김임준 시장, 국회 예산소위 방문



김임준 군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이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김 시장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를 방문해 안상수 예결위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이해훈 의원, 지역구 김관영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호소하며 2019년도 국가예산 반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안상수 예결위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이해훈 의원, 교육위 소속 박찬대 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군산시의 주요 중액사업에 대한 각별한 지원요청과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위촉되었던 지역경제가 회복되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상황을 강조하고 내년도 국비 200억 추가 지원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역주도형 경제활성화 성공모델로 정착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협조를 요청한 주요사업은 ▲군산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커뮤니티 골목상권 소비지원 사업 ▲수제 맥주·청주 특화거리 조성사업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 13개 사업이다.

김 시장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 단계에 걸려 심의 중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사업별 사각방지과 증액을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 실무적인 논의

##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마지막 승부수'

익산시가 내년주요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연일 예결위 예산소위 소속 위원 등을 만나 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방문에 이어 22일 다시 한 번 이주영 국회부위원장 및 예결소위 안상수 위원장과 정인화 위원 등을 찾아 익산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 날 정 시장은 안상수 위원장과 정인화 위원에게 40%의 하수처리기 감량과 연간 23억원 이상의 처리비용 절감을 가능케 할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기 감량화사업(70억)을 필두로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178억),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280억) 등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전액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요청한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를 진행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앞으로 남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군산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막바지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정부 추경에 1,062억 8,000만원을 확보한데 7월에 목적예비비 183억, 특별교부세 78억원 등 파탄위기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회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전북도와 정차권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들이 국회단계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익산시는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시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직원들이 50여 차례 관계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였고, 11월에는 국회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진 바 있다.

또한 국회 본회의가 의결될 때까지 국회 상주 인력을 운영하여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실시간 대응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 군산시,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설명회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함께 27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방조제 내측 태양광 중심의 3GW급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

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며,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혜택이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해야

군산시 보건소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감기와는 다른 질병으로 환자의 기

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며, 38℃ 이상의 고열, 근육통, 두통 등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다.

정현태 보건소장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민사랑포럼 창설

'익산시민사랑포럼'이 '익산시 미래 발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출범했다.

익산시민사랑포럼은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실시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 ▲기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업 추진 등 을 수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민사랑포럼은 박상문 대표((유)일성종합건설), 신해석 수석부대표(원광대총동문회부회장), 박종식 부대표(전 재향군인회 회장), 나국현 전략자문위원(군장대 석좌교수), 서문재 전략자문위원(전 익산시 3선시

의원), 전완수 법률자문위원(전완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상민 법률자문위원(원광대 로스쿨대학원 교수), 박승조 감사(전 이리신협 이사장), 왕경배 감사(익산시 족구협회 회장), 유광면 교문(전 익산시의회 부의장), 김성현 사무총장, 윤상노 재무국장(익산월드라볼링장 대표), 장양원 대외홍보국장(전주매일 기자), 양승무 청년국장(행정사), 장영세 의전국장(전 옹포조합장), 여성국장 등으로 임원이 구성, 2년 임기, 연임가능 규정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연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